

마포구시설공단,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친환경 경영 구체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일용, 이하 공단)은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경영 선도를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고 12월 1일 (월) 밝혔다.
공단은 2030년까지 기준년 대

비 온실가스 37.5% 감축 목표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 12개 전략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는 공공기관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공단의 탄소중립 4대 추진전략은 ▲시설 에너지 효율 혁신: 시설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고효율 설비 도입 및 진단강화,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운영차량 친환경차 전환 및 친환경 교통수단 인프라 확대, ▲자원순환경제 활성화: 폐기물 실적관리제 도

입, 투명페트병 분리배출함 확대 등, ▲친환경교육, 홍보: 직원, 구민대상 친환경 교육 및 캠페인 운영이다.

공단은 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의견교류를 총괄하는 전담조직 그린리더를 구성했으며,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운영하여 친환경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공단 이사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공공기관의 의무이며, 이번 계획 수립과 실천 캠페인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확실한 발걸음을 내딛겠다"고 밝혔다.



▲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통해 구체적인 이행의지를 밝히고 있다.